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4월 나라주일입니다. 나라별로 모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세요.
- 어린이주일: 5월 3일 주일 14시 연합예배, 유아세례식
- 제직회: 5월 3일 주일 16시 믿음방
- 어버이주일 및 교회창립 43주년 기념예배: 5월 10일 주일, 연합예배
설교: Jonas Marquardt 목사(디아코니 대표)
- 매일성경 5,6월호 받아가세요.
- 루터종교개혁지 순례팀 세번째 준비모임: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소망방
(교재 '루터를 말한다 루터가 말한다' 지참)
- 지난 주 방문: 이보영/이준모
- 생일축하: 김하은, 레나 브리휘너, 박성희, 이윤석, 윤재열, 김미현

◆ 말씀일기 일정

일/창27:15-29	월/창27:30-46	화/창28:1-22	수/창29:1-20
목/창29:21-35	금/창30:1-24	토/창30:25-43	일/창31:1-16

- ◆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77독 (조경숙 개인 1독)

◆ 예배위원 안내 ◆

	4월 19일	4월 26일	5월 3일	5월 10일
예배기도	이승열	석호선	어린이/교사	공동기도
안내위원	예배부			
봉헌위원	백윤정 서영지		한정우 최수정	
애찬위원	밥상 돌	밥상 셋	밥상 넷	다함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9)



주일예배 11:45 Teestube 소망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년부 15:30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담임/ 손교훈 목사 Pfr. Dr.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4장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께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47번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425장	다	함	께
기도/Gebet		이승열		집사
찬양/Chor	주만이 내 반석	찬	양	대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창세기 27:15-29	인	도	자
설교/Predigt	인간의 죄, 하나님의 약속	손교훈		목사
찬송/Gemeindelied	455장.....	다	함	께
봉헌/Kollekte.....		다	함	께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손교훈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
 IBAN: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창세기 26:12-33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

이삭이 그랄 목자들과의 분쟁을 피해 최후로 정착한 곳은 '브엘세바'였다(23). "평화주의자" 이삭의 길은 한편으로는 큰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의 길이었다. 하나님은 이삭이 두려움에 떨던 "그 밤에" 나타나셔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재확인하고 강화시켜 주신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24). 솔직히 나는 또 다시 부럽다. 애비 덕 톡톡히 보는 이삭이 많이 부럽다. 하지만, 내 부러움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리라. 그보다 나의 아브라함 됨을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를 위하여 움직이고 계시지 않는가. 힘이 들지만, '감히' 당대의 아브라함으로 사는 자부심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하리라.

무엇보다도 나는 오늘 브엘세바에 담긴 뜻, '일곱 우물'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한 주간은 7일 아닌가. 매일 매일을 말씀의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생수를 길어 올려야 하리라.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25).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더하셔서 원수 된 자와 화평케 하시고(26-31), 열심히 판 우물에서 풍성한 생수를 얻어(32) 풍요를 누리게 하신 것이다.

교우들과 함께 '말씀일기'를 시작하게 하시고 십수년째 달려오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그 손길에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 이 기쁨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나의 브엘세바, 독일 및 유럽 땅 언제 어디서든, 오나 가나, 앞으나 서나 말씀의 우물을 파고 거기서 생수를 길어 올리리라.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며.....

▶ 지난 주 봉헌 내역(4월 12일-4월 18일) ◀

십일조	감사헌금	목적헌금
서연주, 이재완, 손교훈, 한상철	강판연, 단주현, 김평임, 무명2	김한진(장학)
총액 1.929,78유로 = 예배당 1.629,78 + 온라인 300,00		